

숭대극회 제14회 신입생 환영공연

우울증 환자 DIE HYPOCHONDER



작가 : 보토스트라우스(Botho Strauß)
기획 : 이영민, 안상준
연출 : 박혜숙, 백로라

일시 : 1990년 3월 8, 9일 (화 6시)
10일 (수 1, 5시)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주최 :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 모시는 글



극 회 장
천 승 범 (회공 86)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을 맞이하는
기쁜 마음을, 짧은 시간이나마 준비한 저희들의 공연으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두달여 동안 추운 무대에서도 열심히 연습해온 Cast들
Staff 여러분, 연출,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신
기획형들, 그리고 막이 오르기까지 뒤에서 도움주신
선배님들과 학교당국에 감사드립니다.

■ 기획의 변



이 영 민
(물리 84)



안 상 준
(기계 85)

**승대극회여
영원하여라!
극회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저렴한 가격과 맛있는 음식으로
당신의 오늘을 책임지겠습니다.—

상아탑
학사식당

TEL: 812-0714

낭만이 넘치는 숭실인의 휴식처
**마일드
치킨**
TEL: 812-5921

자 매 분 식

TEL: 816-9835

신물과 판촉물, 상판, 도자기, 유리, 종합광고 전문
운영 종합상사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1 숭실대
TEL: 812-1600
FAX: 816-5212
대표 윤영진
YUN YOUNG JIN

공연을 축하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숭실대학교 안경부
실로암안경원
TEL: 816-7875

베어스캠프
TEL: 816-4371

낭만이
숨쉬는 곳

● 숭대
● 숭실대 후문

공연을 축하합니다.
숭실대학교
구내서점

젊은이의 식사처
그린하우스

종합분식 · 신속배달
TEL: 816-5196

■ 작가 및 작품연구

—작가에 대하여—

• Botho Strauß (1944~)

서독의 나움부르크 태생인 보토 슈트라우스는 웨른과 뮌헨 대학에서 독문학과 연극학, 사회학을 공부한 후에 비평가로서 활동하였으며 “현대 연극지”의 편집장으로(1967~1970) 활동하였다. 그리고 1970/71년부터 1975년까지는 베를린 샤우뷘네의 극장동인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서 베를린에서 창작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의 작품으로는 회곡 〈우울증 환자들〉(1971), 〈아는 얼굴들, 뒤섞인 감정〉(1974), 〈재회의 삼부작〉(1976), 〈다와 小〉(1978) 등이 있고, 산문으로는 단편 〈마르레네 자매〉(1975), 〈현사〉(1977), 그리고 장편 〈혼란〉(1980), 〈통행인들〉(1984) 등이 있으며 시 작품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가까움〉(1976) 등이 있다.

—작품 경향으로서의 ‘신 주관주의’(신 주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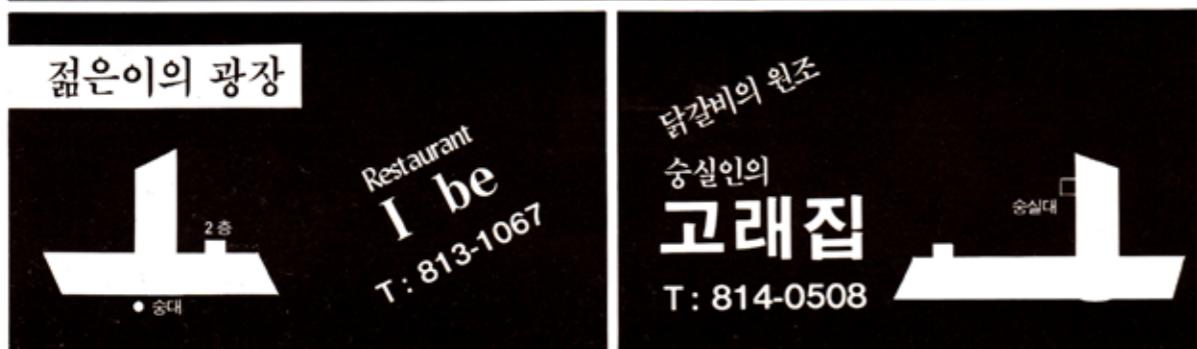
〈우울증 환자들〉을 비롯한 슈트라우스의 네편의 회곡 작품의 공통성은 무엇보다도 등장 인물들의 내면 상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첫번째 회곡 작품 〈우울증 환자들〉에는 이미 제목이 시사하듯이 거의 대부분이 현실감이나 인간 관계를 상실한 노이로제 환자들이 등장하며, 그 밖의 세 작품에도 마찬가지로 몽상가이거나 우울증 환자,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정신적 위기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와 같이 슈트라우스의 문학에는 주로 개인의 의식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강한 우울과 체념의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 그의 문학에 내포된 우울과 체념의 경향은 60년대 말 학생운동의 좌절에서 기인하는 미학적 징후이다. 그는 개인의 행동 공간을 회상, 동경, 상상의 영역으로 몰아간 사회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은 내면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라고 인식하였다. 즉, 개인의 의식상태를 점검하고, 이러한 의식을 거울삼아서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이것을 미학적으로 형상화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인의 의식상태를 문학의 대상으로 다루는 경향은 1960년대의 기록극 등에서 문제가 된 사회적 삶의 관심이 개인의 주관적 삶으로 되돌아 가는 1970년대의 서독의 중요한 문학 경향이다. 이러한 문학적 경향은 ‘신 내면성’, ‘신 감수성’, ‘신 주관성’ 등의 용어로 불리워 졌는데 피터 한트케, 토마스 베른하르트와 함께 슈트라우스가 이러한 경향의 대변자이다.

신 주관성은 ① 도구적인 이성의 감성화, ② 자서전과 같은 출처가 확실한 자기경험, ③ 자아성찰 ④ 주체의 자기관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출발점은 동시대인의 목적상실과 그로인한 생의 무의미함, 오늘날 문명사회 속에 도와서 되어버린 인간주체의 위치와 그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현실인식과 ‘주관성’의 확립을 정립시켜주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작품분석—

「우울증 환자」는 과학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개체의 고립, 소외 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20세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1901년 1월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축축하고 암울한—마치 수족관 같은—분위기의 암스테르담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우울증 환자」는 그 제목이 시사하듯 상호간의 관계가 상실되고 현실감을 상실한 〈우울증 환자〉들이 엮어가는 이야기이다. 갑작적으로 정부를 죽인 넬리와 절묘한 몸짓으로 표현하길 좋아하는 블라디미르와의 관계, 아들에 대해 이성을 느끼는 엘리자베스와 그런 어머니를 경멸하는 아들과의 관계, 블라디미르의 아버지인 야콥과 그에게 살해되는 엘리자베스와의 관계, 그리고 야콥과 블라디미르의 관계가 그것이다. 이들간의 대화는 서로 연관이 되지 않고 각자가 제 말만 떠벌이는, 즉, 대화의 단절, 관계의 상실을 암시해 준다.

이 작품은, 사실 작품속에서 우울증 환자로서 칭해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만 그런 상태에 처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60년대의 논리적인 극의 구조를 의식적으로 파괴한 작품인 「우울증 환자」는 체념과 동경 사이를 동요하는 사랑의 이야기(주인공 블라디미르와 그의 부인 넬리와의 관계), 탐정 소설과 같은 범죄 이야기(한 화학자를 사업상의 문제로 넬리가 살해한 것), 또 낭만주의에서 보이는 공포이야기(블라디미르가 자기 아버지 야콥으로 변신하는 것), 가족 멜로드라마(야콥이 자신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죽이고 넬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 등등의 이야기의 단편들이 끊임없이 혼돈되고 있어서 사랑과 죽음, 부모와 자식, 봉사와 지배, 동일성, 소외, 무의식의 카오스, 권력, 살해 등에 대해 언급되고 의도적인 효과로—줄거리의 통일성을 파편조각 같이 해체시키고 이러한 단편의 장면들을 뭉타지하는 다중적 구조방법, 환상적 기법, 당착어법—그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즉, strauß는 연극의 극적인 효과 자체를 주제 및 플롯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관객이 이런 극적 요인의 의미와 근거를 찾으려 하면 실망하고 만다. 이는 번번히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이 극은 관객과의 끊임없는 혼돈놀이를 자행하는데 모티브 뒤에 새로운 모티브가 나타나며, 꼭두각시 조종사 뒤에 이 조종사를 조종하는 새로운 조종사가 나타나, 결국 이를 보는 사람은 혹 자기도 모르게 이 놀이의 주된 조종사가 아닌가 하고 놀라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것은 야콥과 블라디미르의 관계이다. 이 극에서 야콥은 우울증을 앓는 블라디미르의 자기투영이며, 그의 불안이 인간화된 이미지로서 블라디미르의 제 2의 자아를 나타낸다. 인간이 입법자라는 사상아래, 타성에 젖어버린 꼭두각시 인형들을 조종하다가 삶증을 느끼고 또 다른 곳으로 꼭두각시 놀음을 하러 떠나는 야콥은 법을 수행하는 형사이며, 아이들을 데리고 흥내내기 놀이를 하는 보모이고 블라디미르의 모든 표정과 몸짓에 변화를 주었던 어느 노인이다. 자신의 언어와 행동이 주관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타성에 젖어버린 제 2의 단어와 제 2의 걸음으로 점철되는 삶은—즉 망각의 상태에 빠진 삶—치명적이고 잘못된 삶으로, 그것은 죽음으로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극중의 야콥과 넬리의 대화부분에서 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실마리가 풀린다.

넬리가 야콥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옷을 입고 벗는 과정은 망각과 인식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녀가 인식한 것은 블라디미르가 야콥으로 변신했다는 것과 자신이 야콥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며, 자신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오직 몽매함과 의문을 간직한 채 야콥에 의해 살해된다는 점에서는 엘리자베스와 다를바 없다.

‘우울증’은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병이며, 우울증적 내향성은 정신착란의 경계선까지 발전한다. 이런 현상은 자기들이 누구이며, 또 누가 아니며, 현재 무엇이고, 과거 무엇이었는가가 자신들에게 조차 알수없는 데서 오는 결과이다.

작품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주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혼란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주관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게 한다.

“혹시 우리는 저 망각의 숲인 수족관 안에서 방황하는 물고기들은 아닌가?”.



■ 연출의 변



백로라
(국문87)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처럼 무거워.
그리구
그 돌덩이에 이끼가 앉은 듯 가려워.
난 걷고싶어.
하지만
자꾸자꾸 가라앉아 가기만 해.
어느덧
졸고 있는 날 발견해
난 왜 잠들지 못하는 걸까?
멋진 꿈을 꿀수 있을텐데.



박혜수
(국문87)

○○씨에게
이센 당신과 싸울수 없음에
외로움은 더해가고
당신의 습관, 당신의 열정에
더불어 허망하고
남느니 황폐한 당신의 눈뿐이니
사랑도 믿을 수 없습니다.

■ CAST



블라디미르·아라프
진상범 (전기89)

두려워하지 말아요.
모든 일은
곧 잘 될 거요.



이경희 (산공89)

얼룩말과 악어
독수리와 뱀
사막과 원시림
정신착란과 갈망…



넬리
남재현 (철학88)

우린
우리끼리만 통하는 말을
하는게 어때요?
~꿀꿀?



최윤희 (철학87)

그가 그녀를 평가하듯 위험은
결코 크지 않아. 그때문에
그는, 항상, 너무 일찍 죽은 척
하는거야.



슈파크 1
천승범 (화공86)

이멍청한
코끼리 같은 놈아!
넌 내 신경을
들쑤셔 놓고 있어.



슈파크 2
이범준 (불문89)

난 사실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SE
SE®
■ 중대 816-5459

SE SE

승실人의
상도상회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힐튼빵집
(승실대 정문 앞)
T: 812-4414

● 중대

한식전문, 연회식 완비

상도회관

승실대 상업은행 옆

TEL : 813-0503

■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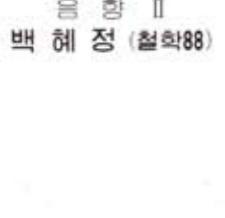
무대감독
박경근 (전지82)



음향 I
충희정 (불문87)



음향 II
백혜정 (철학88)



무대장치 III
권태수 (경영87)



무대장치 I
이승하 (불문85)



무대장치 II
충덕태 (사학87)



무대장치 III
권태수 (경영87)



진행 I
김진희 (회계83)



진행 II
김수진 (사학86)



진행 III
권승혜 (불문88)



조명 I
안선휘 (설유85)



조명 II
황명식 (전기88)



충보
이준석 (기계85)



의상
판숙경 (사사89)



소품
변갑수 (독문87)



분장
원경혜 (건축89)

Restaurant Café
휘 테
T: 816-7337
후문 정문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학사주점
지하
옛촌
TEL: 813-6235

경양식 & 호프전문점
에로
지하
812-5768
충실대 정문

& Today
& Tomorrow
그리고 오늘
내일
T: 812-1829
충실대 상업은행 옆

공연연보

축

◆ 공연 ◆

순수연극인을 지향하며 대학연극의 기수로 활동하는
숭대극회 제14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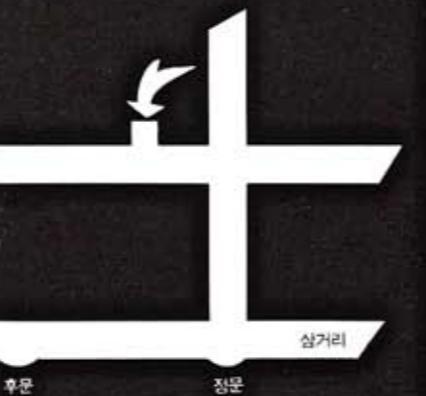
민족승실학생복지위원회

신장개업

연회석완비
한식전문 두메골

승실인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TEL: 813-3655



수장신청 사진
10장 - 2000원

23분 칼라현상소

TEL: 813-2708
(승실대 무역학과 졸업)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21년 6 : 13	연홍회소극 "철제영을 나봉래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탐"		
2	1923년 7 : 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제인간" 혈액청년회 주관		
3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4	1965년 11 :	"폐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석作 이반기희	전진호	
5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6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7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8	1970년 5 : 15	"聖者와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체	
9	1970년 10 : 28, 29	"勝負의終末" 사무엘·베케트作	김양기	
10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천날목 살화" 윤조병作 "담배해독에對해서" 안톤·체홉作 "황금단지" (로마극) 푸라우터스作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베케트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체 유근배 차현재	
11	1971년 11 : 4, 5, 11	"지각 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作	차현재	
12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펀터作	한영체	
13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의 결혼" F. 워렌마트作	고봉인	
14	1973년 10 : 25, 26, 27	"방" H. 펀터作 "기도" (소극장) F. 아라벨作	김득남 차현재	
15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5막) A. 까뮈作	정종화	
16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울이" Max Frisch作	김홍수 김기열 안홍순	
17	1975년 10 : 29, 30, 31	"비디안과 방화법" Max Frisch作	김기열 안홍순	
18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발리作	김기열 김득남	
19	1976년 10 : 25, 26, 27, 28	"방" 장·클로드·반·이발리作	김영덕	
20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에퍼作	백정식 김영덕	
21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에퍼作	방영철 김영덕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22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방영철 김영덕	
23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에퍼作	민승기 김영덕	
24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정재호 이병국	
25	1979년 9 : 29, 10 : 2	"초분" 오태석作	이정일 황정순	
26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作	엄세범 박양진	
27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워렌마트作	이종규 황정순	
28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중作	전석근 황정순	
29	1982년 9 : 12, 13, 14	"끼리클라" A. 까뮈作	음대용 지숙	
30	1982년 10 : 7, 8	"레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作	전희식 황정순	
31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의 결혼" F. 워렌마트作	전희식 김영덕	
32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作	이원우 오정열	
33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이종규 엄세범 오세환	
34	1984년 10 : 11, 12, 13	"빈천소" John Stoltenberg作	차세훈 이용섭	
35	1985년 5 : 9, 10, 11	"빈민굴" Maxim Gorky	김상현 이용섭	
36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 파레스키	하승민 송기범	
37	1986년 6 : 4, 5, 6	"에루우스" EQUUS 피터·에퍼作	허성무 하승민	
38	1986년 9 : 11, 12, 13	"코깥소" E. 이오네스코作	안상준 송기범	
39	1987년 6 :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권형진 이준석 오정열	
40	1987년 9 : 10, 11, 12	"오 래" A. Camus	오정열 박경근	
41	1988년 6 : 2, 3, 4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이 어령作	이종일 오정열	
42	1988년 10 : 6, 7, 8	"안내사? 못내사?" Dario Fo作	권태수 송근호	
43	1989년 5 : 25, 26, 27	"농녀" 윤조병作	전승범 안선호	
44	1989년 10 : 10, 11, 12, 13	"대성당의 살인" T. S. Eliot作	오정열 이반	

▶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풀" W. Arving作	김홍수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作	김득남	
3	1977년 3 : 16, 17, 18	"충 말" 윤대성作	전경호 안홍순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作	한철 정재호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이영환 오세환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학作	최시영 이용섭	
7	1983년 4 : 16, 17	"불타코페디" 피터·에퍼作	전희식 홍여식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8	1984년 3 : 8, 9	"개인의 소공간" N. Holand作	차세훈	김인보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이임민	하승민
10	1986년 3 : 17, 18, 19	"인형의 집" 벤릭·임센作	이길영	김정은 위성신
11	1987년 3 : 12, 13, 14	"더러운 손" J. P. 사르트르作	배윤현	박경근
12	1988년 3 : 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作	천승범	황금실
13	1989년 3 : 23, 24, 25	"혹인수녀를 위한 전통극 A. Camus	홍덕태	박경근



한정동 지훈이엄마

“집에 있으면 바깥 볼 일이 걱정
밖에 나가면 집안일이 걱정이에요.”



모든 일을 집에서 처리하는 편리한 세상
삼성의 휴먼테크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삼성기술연구소
HA개발실 공학번사

이창우



HAV (HOME AUTOMATION) 시스템이란?

컴퓨터로 가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으로 집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범 방재 기능에서 집 밖에서 전자기기를
켜고 끄는 원격제어기능, 집안에서도 바깥일을 처리하는 홈뱅킹
홈쇼핑,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텔리텍스(TELETEX)
기능까지 더욱 안락하고 쾌적한 미래의 주택을 추구하는
총체적 시스템입니다.

■ 흄 테크 제품문의처 : 559-3571~3

인간 행복을 위한 삼성의 기술정신—
휴먼테크가 추구하는 보다 편리한 세상,
보다 안전한 세상. 이것이 바로 휴먼테크
홈 오토메이션(가장자동화)의 세계입니다.
삼성은 이미 도난, 화재 등의 비상상황을 미리
알려 집안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외출 중에도
전화 한 통화로 집안의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가정생활을
실현시켰습니다. 이제는 더 나이가 집안에서
은행일도 보고, 쇼핑도 하며 퍼스컴을 통해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가정자동화시스템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 이는 바로
삼성의 기술정신— 휴먼테크가 드리는
또하나의 약속입니다.



휴먼테크
목표는 「인간행복」입니다.

휴먼테크
중심성전자